

아르헨티나 기도편지

‘한 영혼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영적 나그네의 삶..’

1-2월 사역일정

1. 남미연합신학교 (1.13-24일)
2. 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교회의 보수공사
3. 어린이 수련회 (2.10-12일)
4. 한국 방문 (2.20-3.5일)

기도제목

1. 남미연합신학교 파라과이 여름 계절학기 일정을 위해
2. 스페인어 공부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3. 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교회의 보수공사와 리더 제자훈련을 위해
4. 아르헨티나 선교부와 현지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5. 포르모사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의 물꼬가 더욱 활짝 열리도록
6.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연락처 및 후원계좌

이메일: doulosjung@gmail.com

카카오톡 아이디: lovejesus000

인터넷 전화: 070-7124-1350

후원안내:

국민은행 008690-85-157739

예금주:(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샬롬, 2020년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아르헨티나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분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르헨티나 선교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포르모사 선교 사역

포르모사 원주민 선교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바나바 훈련생들과 현지 목사님 두 분이 함께 동행 했습니다.(다니엘, 다윗)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현지 교회들도 선교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엘 초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을 다니며 구제 물품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우물 사역을 위한 현지 조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선교팀 자매들이 원주민 여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40도가 가까운 뜨거운 더위와 모래 바람 속에도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에는 우물 사역을 위한 장비와 기술자 형제들이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포르모사 원주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선교를 위한 트럭이 너무 오래 되어서 중고 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교회' 목회 사역

현지 교회를 맡아 섬겨온지 5개월이 되어갑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많게는 4번, 주일 예배와 수요일예배, 목요일 주중 자매모임과 토요일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로마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기도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성경속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배우며 함께 세이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균형 잡힌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결교회 추수 감사 연합 예배 때에는 4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집례 하면서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 해는 크게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도, 양육-제자훈련, 선교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신 것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의 리더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통역 없이 제자훈련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저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현재 교회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녀 모두가 다같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아이들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뒤편 공터에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가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재정이 여의치 않지만 다른 분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기보다 더디더라도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보수 공사에 동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몇몇 성도들이 헌물로 드린 기둥과 양철 지붕이 있어서 조금씩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에 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건축가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0년 아르헨티나 성결교회 신년 목회 계획

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나사렛 선교원에서 목회자들과 신년 목회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년 목회 계획은 선교 센터와 가까운 지역에서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나사렛 선교원을 렌트해서 진행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체 목회자들이 모여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환경에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여름이라 한창 바캉스 계절이기도 합니다.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여름휴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번은 좋은 환경에서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래 전부터 고장난 아내의 핸드폰을 새로 사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재



정이 있어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리조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만 너무나 기쁘하고 즐거워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희도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목회 사역을 함께 나누고, 각 교회마다 신년 목회 계획과 성결교회 전체 사역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강기안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는데 모두가 성결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더욱 복음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공부 및 아이들 방학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동사변화를 익히는 일이 쉽지 않을거야.”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점점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12월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학과정 3단계를 모두 잘 마치고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아와 지우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서 1학년과 유치원 과정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여름 방학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긴 여름 방학동안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 방학을 하자마자 한인교회의 어린이 성경학교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우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현지교회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찬양과 율동도 배웠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의 1-2월의 사역

남미연합신학교

1월 13일-24일까지 2주간 남미연합신학교 여름 계절학기가 파라과이에서 진행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체 13명의 신학생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3명의 학생이 신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정상훈 선교사도 신학교 기간동안 2주 일정으로 파라과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으시는 교수님과 학생들을 위해 더불어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아르헨티나와 남미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수련회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련회 준비를 위해 각 교회 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전문 사역을 위한 교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 일정

아버지께서 지난 12월에 팔순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 남미에서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혼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과 아내만 보내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30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아이들과 이동해야 하는 일은 아이들과 저희 부부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은데 팔순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다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후원교회 중에 아직 파송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가 있어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일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우리의피난처교회'가 방문 기간 동안 아무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정바나바, 한초희 지아, 지우 선교사 가정 드림.